

광주·전남 國庫예산 사상 첫 6조 돌파 서남권개발 등 SOC확충 '탄력'

광주 1조4456억·전남 4조8397억
정부, 새해 예산 163조3500억원

2007년도 광주·전남지역 국비지원 예산이 크게 늘어 6조원대를 돌파함으로써 지역 현안사업 추진이 크게 활기를 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서남권개발과 관련된 전남 남부권 주요 신규 SOC 사업 예산 및 지역민의 숙원이었던 호남고속철 신설과 광주~무안간 고속도로의 광주 평동산단 연결도로 예산도 반영됐다. 또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예산도 대부분 반영됐다.
광주·전남지역 국비지원예산이 늘어난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의 노력 ▲호남 예산에 반대해왔던 한나라당의 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07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광주지역 국비지원액은 1조4천456억원으로 올해 1조1천257억원 보다 28.4% 늘었다. 전남은 4조 8천397억원으로 2006년 4조 3천415억원의 115%인 4천982억원이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SOC분야가 전체 반영액의 50.6%인 2조 4천479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강력한 지원의지를 밝힌 서남권 종합개발계획을 뒷받침할 총사업비 5천 800억원 규모의 새전년대교(압해~압태) 설계비 10억원을 포함한 전남지역 41건의 신규사업 예산 1천38억원이 반영돼 내년 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함께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기반사업비 7천681억원이 편성돼 내년 세계박람회 사무국(BIE)의 실사에 대비할 수 있게됐다.
또 지역민의 숙원이었던 광주~무안고속도로의 평동산단 진입로 공사비가 새로 편성돼 '절름발이 고속도로'를 면하게됐다. 고창~장성간 고속도로는 내년 예산 1천444억원이 확보돼 당초 2010년 준공 예정에서 2008년 준공으로 공사기간이 크게 줄었다.
또 호남고속철 예산 502억원이 반영돼 2006년에 쓰이지 않아 이월된 200억원을 포함, 모두 702억원이 확보돼 전구간(오송~목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노반분야)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센터 건립, 광산업 육성 집적화, 과학기술센터 및 연구소 운영, 전자산업 육성, 광가입자망 서비스개발, 나노기술집적센터 구축 예산이 편성돼 첨단산업 육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27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총 163조3천5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일반회계+특별회계)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에 앞서 예산결산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일반회계(158조원)와 특별회계(6조7천억원)를 포함한 총 164조7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1조3천500억원 순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삭감액은 사상 최대 규모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나누면 행복해요" 27일 오전 광주시 서구 경복궁 웨딩컨벤션에서 열린 '행복서구 나눔운동 만남의 날' 행사에서 지난 1년간 GS건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온 광주시 서구 금호동 '로맨나무 그림 홈' 아이들이 준비해 온 선물을 후원자들에게 전달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나눔주기자 mjna@kwangju.co.kr

CEO 가장 많이 배출한 고교는? 경기고(55명) 호남 최다 광주일고 16명 8위

월간 CEO, 500대 기업 CEO 524명 분석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CEO)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고등학교는 어디일까. 서울은 '경기고', 지방은 '부산고'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524명 중 229명으로 47.5%로 가장 많았고, 경상도권은 161명(30.7%), 전라도권 53명(10.1%) 순이었다. 전라도권에서는 광주일고가 16명(전국 8위)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일고의 경우 박종현(삼양사)·이중재(한국수력원자력)·이준호(대한화재해상보험)·김성산(금호산업)·오세철(금호타이어)·선중구(하이마트)·고홍식(삼성토탈)·정태석(광주은행) 등이 들어 있다.
또 광주고는 손학래(한국도로공사)·신광웅(신동아건설)·신훈(금호산업)·정장섭(한국중부발전)씨 등이 포함됐으며, 순천고 출신은 이종근(부영)·권행석(세방), 목포고 출신은 박성철(신원)·임성주(씨엔진도)씨 등이다.
경영전문지 '월간 CEO'가 내년 1월호에서 국내 500대 기업(매출액순)내 524명의 CEO를 출신 고교별로 분석한 결과

■500대 기업 CEO 배출 상위 10개 고교

순위	출신고	인원
1	경기고	55명
2	경북고	33명
3	서울고	28명
4	부산고	26명
5	경북고	23명
6	경남고	22명
7	부산고	17명
8	광주제일고	16명
8	전주고	16명
10	홍익고	14명

■500대 기업 CEO 출신 지역별 분포

지역	인원	비율(%)
서울	249명	47.5
경상도	161명	30.7
전라도	53명	10.1
충청도	25명	4.8
경기/인천	23명	4.4
제주도	4명	0.8
일본	3명	0.6
강원도	2명	0.4
미국	2명	0.4
충청	1명	0.2
이북	1명	0.2

경기고가 55명의 기업가를 배출해 전체의 10.5%를 차지했다.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김희철 벽산 회장, 손경석 CJ 회장, 허영섭 녹십자 회장 등이 경기고 동문이다. 경기고 다음으로는 경북고가 33명(65.3%)의 기업가를 탄생시켰다.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민경조 코오롱건설 회장, 김윤 삼양사 회장 등이 이 학교를 나왔다.
서울고도 28명(5.3%)의 CEO를 배출해 '베스트 3'에 들었다. 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 회장, 황영기 우리은행 행장, 이종수 현대건설 사장 등이 서울고를 졸업했다. 이어 CEO가 많이 나온 명문고는 부산고·경북고·경남고 순이었다. 25명(4.8%)의 기업가를 배출시킨 부산고 출신 중에는 황창규 삼성전자 사장, 김중열 하나은행 행장, 김정만 LS산전 부회장 등이 포함됐다.
전라도권에서는 광주일고가 16명으로 전국에서 8위를 차지했고 광주고 7명, 전주고 5명, 군산고 4명, 순천고 4명, 군산고 2명, 원광고 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특권집단과 충돌할 수 밖에"

노대통령 "부동산 말고는 풀릴 것 없다"

27일 부산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특권집단과는 충돌할 수 밖에 없다"며 사회 각층의 특권계층과의 대립각을 세웠다.
노 대통령은 또 "부동산 말고는 풀릴 것이 없다"며 자신과 정부를 겨냥한 실재한 정권이라는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기사 4면>
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북항재개발 보고회 등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이날 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지난 26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차별화' 등 정치 공세에 대해 "앞으로 할 말 다 하겠다"고 공언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노 대통령은 부산 롯데호텔에서 지역인사와 정부 관계자 등과의 오찬에서 특혜와 반칙의 시대 청산을 뜻하는 특권구조 해체 노력에 대해 "지금 열두 다 되어가지 않았나"라고 자평하면서 우리 사회가 현재 그런 과정

에서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에서는 검찰이 좀 센 편이고 정부 바깥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센 것이 재계고, 그다음 언론이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참여정부의 '과(過)'로 부동산 정책을 들면서 "부동산 말고 풀릴 것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공기관 취업 500명 우수인재 전형
남부대학교
http://www.nmbu.ac.kr
전남과학대학
http://www.jnsc.ac.kr

社 告

신문주간 포스터 공모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는 제 51회 신문의 날 및 신문주간을 맞아 신문주간 포스터를 현상 공모합니다.
온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부문 : 포스터(일반부/학생부-초·중·고)
 - 응모기간 : 2007년 1월 2일(화) ~ 2월 28일(수)
 - 출품요령 : 출품규격을 준수하여 공모신청서를 작성, 방문 또는 우편접수(신청서는 한국신문협회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에서 다운 받아 활용)
 - 출품작 수 및 규격 : 개인별 2점 이내, 4절(39.4 x 54.5)
 - 제출 및 문의처 : 한국신문협회 (100-745)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3층 1302호 (Tel : 02-733-2251 ~ 2 Fax: 02-720-3291)
- ※응모 소재 및 시상 내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신문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세종' 국민여러분이 직접 지어주신 행복도시의 새 이름입니다!